

일본에서의 교환유학

고려대학교

진민희

학적번호 2590063

약 반년간의 교환유학 기간 동안 일본에서 많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 처음 해 보는 자취였지만, 기숙사인 오토와관은 개인실에 화장실과 샤워실, 주방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매우 편리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. 직접 요리를 해 먹고 도시락을 싸서 수업에 가는 생활도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. 오토와관의 존재가 유학 생활을 편하고 즐겁게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.

평소에도 학교 주변을 걷는 것을 좋아해, 수업이 끝난 뒤 오츠카 역까지 걸어가 카페나 식당에 다녀오곤 했습니다. 주 2 회 정도 이케부쿠로까지 걸어가거나 스이도바시까지 산책 삼아 다녀오며 도쿄의 거리 풍경을 즐겼습니다.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동네를 걸으며 일본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. 이케부쿠로에서 굿즈샵을 둘러보고 회전초밥을 먹은 뒤 노래방에 가는 루틴도 교환유학 생활의 즐거움이었습니다.

여유가 있는 날에는 요코하마, 가마쿠라, 가와고에 등 도쿄 근교 지역과 더불어 교토와 오사카에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지역마다 분위기가 달랐고, 도시 경관과 자연 경관을 모두 감상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. 특히 가마쿠라에서는 반짝이는 바다의 풍경이



인상적이었으며, 도심과는 또 다른 일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학교 생활도 즐거운 경험으로 남았습니다. 학원제에서는 다양한 동아리의 활동을 구경하고, 노점에서 음식을 사 먹으며 일본 대학 학원제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할 수

있었습니다. 전공 수업 중에는 일본어로 답안을 작성하는 지필 시험이나 매수업마다 제출해야 하는 미닛 페이퍼가 있는 수업도 있어 쉽지 않았지만, 일본어 손글씨와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.

교환유학을 오기 전에는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, 지도교수님인 신 교수님과 튜터 아즈사 씨,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유학생 친구들 덕분에 즐겁고 의미 있는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